

美환경자문위원장과 의 간담회

양국간 에너지기술개발 협력 논의

한국에너지협의회(회장 한준호 한전사장)는 지난 4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방한 중인 美대통령직속 환경자문위원회(CEQ) J. Connaughton 위원장 일행과 국내 에너지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측에서는 CEQ 위원장 외에 Watson 美국무성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 Peel 국가안보회의 국제환경담당 국장, 주한美대사관 Tong 경제공사와 Charlton 참사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한준호 회장, 허동수 GS칼텍스회장, 신현철 SK사장, 이종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Connaughton 위원장 일행의 방문목적은 제2기 부사행정부의 에너지정책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에너지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의존도 증가와 관련한 에너지안보 문제, 교토의정서 관련 온실가스감축 대응책으로 청정기술개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 에너지업계와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준호 회장은 국내 업계를 대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지만 실제 감축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산업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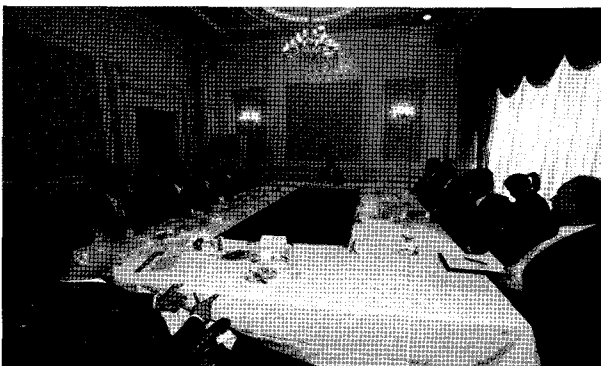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에너지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원자력발전이 최선이나 국내 일부 NGO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 미국이 원전 산업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발전량의 약 40%가 석탄발전으로 청정석탄기술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전달했다.

허동수 회장은 국내 석유산업과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으로서 업계의 온실가스감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미국측은 원자력, 수소, 청정석탄,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CO₂캡슐 등 신기술과 파트너십 및 경제성장이 최선의 해결책임으로 제시하였다.

신현철 사장은 온실가스감축 부담과 관련 국내 업계는 중국 인도 남미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방식을 기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미국측도 각국의 차별화된 분담방식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미국과 경험 공유를 제안했다.

이종재 사장은 미국의 “2010원전구상” 추진 현황과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원자력의 CDM 포함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미국측은 적극 찬성임을 밝혔다. 미행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정책 배경에 대한 방기열 원장의 질의에 대해 미국측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에너지수요 증가로 해외수입의존도가 높아져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자립도 향상이 목표임을 설명했다.



WEC 2005 집행이사회 참가 안내

9. 4~9 스리랑카 Colombo

■ 행사개요

- 회의명 : WEC 2005년도 연차 집행이사회
- 기 간 : 2005. 9. 4 ~ 9
- 장 소 : 콜롬보 국립기념관(BMICH)
- 주 최 : WEC스리랑카위원회 및 전력에너지부
- 등록비 : 주최국 부담

■ 참가신청

- 참가자격 : 협의회 회원사 임직원
- 참가비용 : 항공/호텔 본인 부담
- 호텔예약 : 2005. 7. 31까지
- 지급방법 : 전신송금/신용카드
- 프로그램 : WEC 홈페이지 참조
- www.worldenergy.org
- 참가문의 : 한국에너지협의회 사무국
- 전화 : 02-787-8508/9

■ 행사일정

일자	주요 회의	부대 행사
4(일)	홍보위원회, 남아시아T/F포럼	전시회, 관광
5(월)	지역별회원국회의 상임위원회	Welcome Reception
6(화)	Study Group Meeting, 개회식	전시회, 관광
7(수)	Study Group Meeting 회원국 사무국장 회의	산업시설방문, 전시회 Sri Lankan Night
8(목)	집행이사회, 에너지심포지엄	
9(금)	Sri Lankan Energy Day	Farewell Dinner
10(토)		Post-EA Tour

